

홍언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의 내용과 작자의식

김아연*

— || 차례 || —

- I. 머리말
- II. 홍언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의 현황
- III. 홍언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의 내용
- IV. 홍언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의 작자의식
- V. 맺음말

【국문초록】

재미독립운동가이자 시조작가인 홍언(洪彦, 1880~1951)은 ‘동희수부’라는 필명으로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소재 시조 33수를 『신한민보(新韓民報, The New Korea)』에 발표했다. 홍언의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의 내용은 ‘연합군과 추축군의 전투 및 미군의 도쿄 공습’, ‘재미한인의 전시 지원 및 위상 제고’, ‘연합군 전사자 및 플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 추모’, ‘추축군의 항복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으로 대별된다. 홍언의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에 나타난 작자의식은 ‘보도에 대한 사명감’, ‘국권 회복의 의지’, ‘고국 복귀의 의지’, ‘추축군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파악된다.

주제어: 홍언, 제2차 세계대전, 시조, 재미한인, 『신한민보』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기획연구부 일반연구위원.

I. 머리말

홍언(洪焉, 1880~1951)은 일제 강점기 미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이다. 1904년 9월 하와이로 이주한 홍언은, 박용만(朴容萬)의 뒤를 이어 1911년 11월 1일부터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기관지 『신한민보(新韓民報, The New Korea)』의 주필로 활동했다. 홍언은 신한민보사에 재직할 때에나, 독립운동 자금 모집으로 1919년, 1921~1922년에 신한민보사를 잠시 떠나 있을 때에나, 1943년 6월 10일 건강상 문제로 『신한민보』 주필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자신이 창작한 시조·가사·한시·소설·희곡·비평 등을 ‘동희슈부’·‘히웅’·‘랑화쥬션’·‘쥬션’·‘리차드 홍’이라는 필명으로 『신한민보』에 발표했다. 그 작품수는 400여 편에 달하며, 그중 시조는 284편¹⁾이 현전한다.

홍언 시조에 관한 연구 성과는 홍언의 행적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홍언의 시조 일부를 소개한 연구²⁾, 홍언의 시조 형식 실험을 고구한 연구³⁾, 홍언의 몽유시조를 분석한 연구⁴⁾, 홍언의 미국기행시조를 대상으로 홍언

-
- 1) 김아연, 「재미작가 홍언의 국화 소재 시조에 나타난 국화의 심상-〈신한민보〉 게재 작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64집,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p.296에서 홍언 시조의 수를 295수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가을 무궁화」(1936년 10월 29일)부터 「나라 업시 쯔 한 히를 보내면서」(1947년 12월 25일)까지 『신한민보』에 게시된 홍언 시조를 재집계한 결과를 근거로 홍언 시조의 수를 284수(1936년 8수, 1939년 11수, 1940년 20수, 1941년 40수, 1942년 35수, 1943년 12수, 1944년 17수, 1945년 42수, 1946년 48수, 1947년 51수)로 정정함을 밝힌다.
 - 2) 방선주, 「홍언과 국민회」,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 3) 박미영, 「재미작가 홍언(洪焉: 1880~1951)의 시조 형식 모색과정과 선택」, 『시조학논총』 제18집, 한국시조학회, 2002, pp. 163-202.
 - 4) 박미영, 「재미작가 홍언의 몽유가사-시조에 나타난 작가의식」, 『시조학논총』 제21집, 한국시조학회, 2004, pp. 77-110.

의 디아스포라적 작가의식을 규명한 연구⁵⁾, 홍언의 시조에 나타난 국화의 심상을 논구한 연구⁶⁾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처럼 홍언 시조에 관한 연구 성과는 소략하지만, 작자 홍언의 행적부터 홍언 시조의 형식, 장르, 심상까지 그 연구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 글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의 토대 위에서 홍언이 창작한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소재 시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신한민보』는 ‘중왜대전’란·‘중일대전’란·‘구주대전’란·‘미일전쟁폭발’란·‘티평양대전’란·‘미일대해전’란·‘미국던’란 등에 전시 상황을 보도했다. 1940년 1월 『신한민보』 주필에 재선임된 홍언은,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 직후 ‘춘광이 다시 오나니’(1941년 12월 11일)를 시작으로 「왜적의 항복을 듯고」(1945년 9월 6일)까지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 33수를 『신한민보』 ‘詞藻’란에 발표했다.

소재영은 “전쟁이란 그 시대를 담당한 자들에게는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특수체험이므로 그만큼 투철한 사명감이나 의식을 가진 자들에 의해 많은 작품들이 생산될 당위성을 가졌다고 할 것이다.”⁷⁾라고 언술한 바 있다. 이에 의거하여, 『신한민보』의 주필로서 제2차 세계대전 보도기 사·칼럼 등을 집필·편집한 홍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시조의 소재로 활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전제하에 이 글은 홍언이 창작한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의 현황, 내용, 작자의식을 논구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 글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조문학의 소재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홍언

5) 박미영, 「재미작가 홍언의 미국기행시기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적 작가의식」, 『시조학 논총』 제25집, 한국시조학회, 2006, pp. 175-209.

6) 김아연, 앞의 논문.

7) 소재영, 「韓國 戰爭文學의 回顧와 展望」, 『우리文學研究』 제17집, 우리문학회, 2004, p.2.

의 제2차 세계대전 시조가 해외 한국문학의 계보, 한국 전쟁문학의 계보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 글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신한민보』⁸⁾를 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II. 흥언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의 현황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아시아·북아프리카·태평양·대서양 등지에서 영국·프랑스·미국·소련·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聯合國, Allied Powers)과 독일·이탈리아·일본을 중심으로 한 추축국(樞軸國, Axis Powers)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계기로 발발했고, 1941년 6월 22일 독일의 소련 침공,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일어난 태평양전쟁 등으로 전쟁의 규모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종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인 태평양전쟁은 재미한인에게 있어 고국 한국의 주권을 침탈한 일본이 자신들의 새로운 터전인 미국을 침입한 사건이기도

8) 『신한민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search/searchResultList.do?sort=&dir=&limit=20&page=1&setId=128&totalCount=128&kristalProtocol=&itemId=npsh&synonym=off&chinessChar=on&searchTermImages=%EA%B5%B0%EC%9E%90&searchKeywordType=BI&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A%B5%B0%EC%9E%90&searchKeywordConjunction=AND>(2017년 7월 3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신한민보』는 마이크로필름(Microfilm) 자료를 디지털화한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는 1909년 2월 10일부터 1945년 12월 27일까지 간행된 『신한민보』를 열람할 수 있다.

했다. 그런데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하와이의 군법무관과 이민국에서는 제1세 재미한인이 일본 신민이므로 제1세 재미한인을 적국 국민으로 분류했다.⁹⁾ 인종이나 피부색을 구별하기가 어려웠던 일부 미국인은, 동양인을 일본인으로 간주하고¹⁰⁾ 재미한인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¹¹⁾

재미한인은 미국인이 자신들을 적국 국민으로 오인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는 1941년 12월 9일에 일본인 보이콧(boycott)을 단행하는 긴급훈령을 국민총회관에 통지했다.¹²⁾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1941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했고¹³⁾, 이 회의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재미한인의 신분 보장, 재산 보호를 받기 위해 한인증명권·증명패¹⁴⁾·증명지·증명표를 발급했다.¹⁵⁾

한편, 재미한인은 미국의 승리를 조국 광복의 기회로 여겼다.¹⁶⁾ 그리하

9) Wayne Patterson, *The Ilse: The First 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Hawaii, 1903-1973*,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 p.182(김도형, 「태평양전쟁기 재미한인의 ‘전시행동’」, 『역사문화연구』 제21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4, p.3).

10) 「전시잡문」, 『신한민보』, 1941년 12월 25일.

11) Mary Palk Lee/Sucheng Chan(ed.), *Quiet Odyssey-A Pioneer Korean Women in America*, University of Washington, 1990, p.95(김도형, 앞의 논문, p.4).

12) 「주미외교위원부의 긴급훈령」, 『신한민보』, 1941년 12월 11일.

13)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공동」, 『신한민보』, 1941년 12월 11일.

14) California Digital Library CALISPHERE 「Korean American man wearing but ton stating “Korea for victory with U.S.” in 1941, Los Angeles, Calif」, [http://calisphere.org/item/ark:/21198/zz0002q584/\(2020년 5월 3일\)](http://calisphere.org/item/ark:/21198/zz0002q584/(2020년 5월 3일)).

15) 한인 신분 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인 신분 증명」, 『신한민보』, 1941년 12월 11일; 「특별 주의할 뗏 가지」, 『신한민보』, 1941년 12월 11일; 「사무과의 신두식 씨는 이중 증명 가격을 발표」, 『신한민보』, 1941년 12월 25일 참조; 홍선표, 『재미한인 독립운동의 표상 김호』, 역사공간, 2012, pp. 165-166.

여 재미한인은 미국의 전시 수행에 협조하기 위해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시공채(war bond) 발매에 봉사하기도 했고, 미국에 설치된 일본인 수용소에서 일본어 통역관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미군에 자원입대하여 태평양전선에서 일본군과, 유럽전선에서 독일군·이탈리아군과 전투를 치르기도 했다. 이처럼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 재미한인은 전시 행동에 적극적으로 돌입했다.

미주 한인사회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흥언은 ‘동희수부’라는 필명으로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 33수를 『신한민보』에 발표했다. 다음의 <표>는 흥언의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를 정리한 것이다.

<표> 『신한민보』에 게시한 흥언의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 목록

연번	제목	역사적 배경	『신한민보』 발행일자
1	춘광이 다시 오나니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1941)	1941년 12월 11일
2	고리기도의 광영	코레히도르 전투(1942)	1942년 4월 16일
3	외아들을 전장으로 보너며		1942년 4월 30일
4	어머니를 써나 전장으로 나가며		1942년 5월 7일
5	남편을 전장으로 보너며		1942년 5월 21일
6	어머니의 눈물		1942년 5월 28일
7	쌍가포 전정	싱가포르 전투(1942)	1942년 6월 11일
8	동경작격	미군의 도쿄 공습(1942)	1942년 6월 18일
9	티평양 히전	산호해 해전(1942), 미드웨이 해전(1942)	1942년 6월 25일
10	전장의 꿈		1942년 7월 2일
11	기관총 넘헤누어	코레히도르 전투(1942) ¹⁷⁾	1942년 7월 9일
12	마즈막 도라보니		1942년 7월 16일

16) 「미일 전정 중 우리의 급무」, 『신한민보』, 1941년 12월 11일.

17) 「기관총 넘헤누어」의 말미 작자 주에 “이 시는 고리기도의 전정 사진을 보고 쓴

연번	제목	역사적 배경	『신한민보』 발행일자
13	너 용딩을 안다면		1942년 7월 23일
14	전시엔 나온 국화		1942년 8월 6일
15	괴달었다	한일병합조약(1910) 로스엔젤레스 시정청 태극기 현기식(1942)	1942년 9월 3일
16	솔로몬 미군의 승첩을 두고	과달카날 해전(1942)	1942년 11월 26일
17	안수산을 전디로 보이며		1942년 12월 17일
18	<비스막>히의 전첩을 두고 一	비스마르크 해전(1943)	1943년 3월 11일
19	<비스막>히의 전첩을 두고 二	비스마르크 해전(1943)	1943년 3월 18일
20	<비스막>히의 전첩을 두고 三	비스마르크 해전(1943)	1943년 3월 25일
21	순국한 미국 비행원을 추도함		1943년 5월 6일
22	북비주 전첩을 두고 一 ¹⁸⁾	튀니스 전투(1924~1943)	1943년 5월 20일
23	하나인 심명		1944년 6월 1일
24	김계춘 소위를 인도함		1944년 6월 8일
25	투필중군		1944년 7월 6일
26	안수산 희군 소위에게 편화를 씩겨 주며		1944년 9월 7일
27	리원규 중위의 전사를 인도함		1944년 9월 21일
28	루통령의 서세를 숭허함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서거(1945)	1945년 4월 19일
29	동경에 빛는 불	미군의 도쿄 공습(1945)	1945년 6월 7일
30	네 죄로 흘린 피	미군의 도쿄 공습(1945)	1945년 6월 28일
31	일본의 핏빛 「혈치」	미군의 도쿄 공습(1945)	1945년 7월 5일
32	아이슨하워 장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미국 귀국(1945)	1945년 7월 12일
33	애적의 항복을 두고	한국 광복(1945)	1945년 9월 6일

위의 <표>를 통해 다음의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홍언의 제2

것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괴관총 녀해누어」의 역사적 배경이 코레히
도르 전투(1942)임을 알 수 있다.

18) 「북비주 전첩을 두고 一」는 후속편이 부재하므로, 이 작품의 갈래를 1수로 구성된
단시조(單時調)로 분류할 수 있다.

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의 발표 시기와 작품수를 검토하면, 1941년에 1수, 1942년에 16수, 1943년에 5수, 1944년에 5수, 1945년에 6수로 집계된다. 이처럼 홍언의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는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1941년부터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1945년까지 매년 창작되었다.

둘째, 홍언의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의 제목에는 주로 인명, 지명 및 군사 용어가 나타난다. 이로써 홍언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시에 홍언이 제목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전시 상황을 축약하여 『신한민보』 구독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셋째, 홍언의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는 코레히도르 전투(1942), 싱가포르 전투(1942), 산호해 해전(1942), 미드웨이 해전(1942), 과달카날 해전(1942), 비스마르크 해전(1943), 튀니스 전투(1924~1943) 및 미군의 도쿄 공습(1942, 1945) 등 전투 장면을 재현한다. 그런데 홍언은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를 발표하던 시기에 『신한민보』 주필을 맡았다. 따라서 홍언의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에 형상화된 전투는 홍언이 직접 참가한 전투가 아니라, 『신한민보』 집필·편집 과정에서의 간접 체험이다.

넷째, 「북비주 전첩을 듯고 一」(1943년 5월 20일)를 기점으로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의 공간적 배경이 태평양전선에서 아프리카전선, 유럽전선으로 확장된다. 구체적으로 「북비주 전첩을 듯고 一」는 북아프리카전선, 「김계춘 소위를 인도함」(1944년 6월 8일)은 유고슬라비아전선·이탈리아전선, 「리원규 중위의 전사를 인도함」(1944년 9월 21일)은 영국전선에서 일어난 일을 형상화한다. 북아프리카전선·유고슬라비아전선·이탈리아전선·영국전선은 미군—제2세 재미한인 입대자 포함—의 참전 지역이다. 재미한인은 미국의 승리가 조국의 광복을 가져다줄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 전선들은 당대에 미주 한인사회의 관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의 공간적 배경이 확장된 것은 홍언이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재미한인의 인식과 관심을 시조 창작에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홍언의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의 창작 시기, 작품 수, 제목, 전투에 대한 홍언의 간접 체험, 공간적 배경의 확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홍언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았지만, 미주 한인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전시 상황, 미국에 대한 전시 지원 및 시대적 과업인 ‘한국 독립’에 대해 관심이 있었으며, 시조의 형식과 신문의 대중성에 기대어 자신의 관심사를 한인 동포와 공유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Ⅲ. 홍언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의 내용

1. 연합군과 추축군의 전투 및 미군의 도쿄 공습

연합군과 추축군의 전투를 재현한 작품으로는 「고리기도의 광영」(1942년 4월 16일), 「쌍가포 전징」(1942년 6월 11일), 「티평양 히전」(1942년 6월 25일), 「기관총 넙헤누어」(1942년 7월 9일), 「솔로몬 미군의 승첩을 듯고」(1942년 11월 26일), 「<비스막> 히의 전첩을 듯고 一·二·三」(1943년 3월 11일·18일·25일), 「북비주 전첩을 듯고 一」(1943년 5월 20일) 등이 있다. 다음은 「고리기도의 광영」의 원문이다.

저건너 고리기도 영광이 찬란하다



왜병의 대포불이 강산을 씨트려도



별귀는 그대로 필필 불빛속에 날니니

四월 十일 와싱턴 전보에 하얏으며 필립핀 싸탄 반도의 미필 련군은 왜병에게 항복지 안코 고리기도로 철퇴하얏고 최후 一각에 잇난 고리기도는 왜병의 대포불이 우박 쏟아지듯 하야도 [스타]귀는 그대로 날닌다 하얏으니 오날 고리기도의 광영은 미국 력사상에 다시 보는 [스타 스쟁글 썬너]이다¹⁹⁾

위의 「고리기도의 광영」이 발표되기 전 1942년 4월 8일, 일본 장군 혼마 마사하루(本間雅晴)의 군대가 미국 장군 조나단 웨인라이트(Jonathan Wainwright)가 방어하던 필리핀 바탄 반도를 함락시켰다. 이때 웨인라이트는 미군-필리핀군으로 구성된 연합군[미필 련군]을 이끌고 바탄 반도 앞 바다에 위치한 코레히도르[고리기도] 섬으로 퇴각했다. 연합군은 전세가 불리함에도 코레히도르 섬에서 미국 국기인 성조기[별귀, [스타]귀, 스타 스쟁글 썬너]를 높이 달고 일본군의 포격에 저항했다.²⁰⁾ 작자는 미군이 코레히도르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일본군에 용맹하게 대적한 일을 기리기 위해 성조기를 작품의 전면에 내세우고, 시적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초장에서 “고리기도 광영이 찬란하다”라고 찬탄한다. 다음은 「쌍가포 전침」의 원문이다.

금성이 곧단 말을 뉘라셔 믿엇든고?



장수는 교만하고 군사가 원망하야



19) 「고리기도의 광영」, 『신한민보』, 1942년 4월 16일.

20) 코레히도르 섬에서의 전투에 관한 1942년 4월 9일자 전보, 4월 10일자 전보는 「싸탄 반도의 함락 실력지만 영광이다」, 『신한민보』, 1942년 4월 16일 참조.

一제히 갑옷을 푸니 썩가포가 어이리!21)

위의 「썩가포 전침」은 1942년 2월 15일에 일본 장군 야마시타 도모유키(山下奉文)가 이끈 일본군에 의해 영국령 싱가포르[썩가포]가 함락된 일을 재현한다. 싱가포르 북부 해안가에 인접한 말레이시아 남부 조호르 주에는 영국이 1938년에 구축한 해군기지 방어시설이 있었다. 때문에 싱가포르 전투가 있기 전에 영국 장군 아치볼드 웨이블(Archibald Wavell)은 자국의 해군기지 방어시설이 네다섯 달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22) 웨이블의 생각과 같이, 당대에는 싱가포르를 금성(金城), 곧 난공불락의 요새로 믿었다.

그런데 싱가포르 전투 당시에 일본군은 조호르 해협을 건너 싱가포르 북서쪽 끝자락으로 남하했고, 싱가포르의 식수 공급원을 장악했다. 영국군은 물·연료·양식·탄알이 부족하여 전투를 벌일 수 없었다. 결국 영국군 사령관 아더 퍼시벌(Arthur Percival)과 영국군 6만 명은 2월 15일 오후 7시에 일제히 무장해제하고 일본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했다.23) 시적화자는 싱가포르 전투에서 영국군이 패전한 결말을 상기하면서 종장에서 일본군의 수중에 들어간 “썩가포가 어이리!” 하고 탄식한다. 다음은 「티평양 희전」의 원문이다.

산호희 붉은 물과 중로도 흰 깃뿔은



왜병의 비가 찌져 잠기든 자취어니



21) 「썩가포 전침」, 『신한민보』, 1942년 6월 11일.

22) 존 키건 지음, 류한수 옮김, 『2차세계대전사』, 청어람미디어, 2007, p.389.

23) 「티평양 전침-썩가포의 함락 六만 영국이 투항」, 『신한민보』, 1942년 2월 19일.

티평양 성닌 물결도 명랑포와 갓고나!

주 = 산호히 「키를 씨」 중로도 「민 웨이」 명랑포 [리츨무씨서 왜적을 소탕하는 넷 전장]²⁴⁾

위의 「티평양 히전」은 미군과 일본군이 1942년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치른 산호해 해전, 1942년 6월 4일에 벌인 미드웨이 해전을 다룬 작품이다. 산호해 해전에 미군은 항공모함 렉싱턴 호·요크타운 호 등 2척을, 일본군은 대형 항공모함 쇼가쿠 호·즈이카쿠 호 및 소형 항공모함 쇼호 호 등 3척을 파견했다. 미드웨이 해전에 미군은 항공모함 요크타운 호·엔터프라이즈 호·호넷 호 등 3척을, 일본군은 항공모함 아카기 호·가가 호·히류 호·소류 호 등 4척을 파견했다. 이처럼 두 해전에서 미군의 항공모함은 수적으로 열세했다.

하지만 미군이 일본군의 공격을 방어한 결과, “왜병의 비가 씨져 잠기”어서 일본군의 남진은 뉴기니에서 멈추었고 제2차 세계대전은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 시점에서 시적화자는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의 지휘로 조선 수군의 12척이 일본군의 133척을 물리친 명랑해전(1597)을 떠올리면서 “티평양 성닌 물결도 명랑포와 갓고나!” 하고 감탄한다. 곧 작자 흥언은 이순신 시대의 명랑해전과 흥언 시대의 산호해 해전·미드웨이 해전을 동일한 패턴으로 전개된 사건으로 여겼던 것이다. 다음은 「솔로몬 미군의 승첩을 듯고」의 원문이다.

솔로몬 푸른 섬에 독술이 날아 들어



장사진 들닌 빔을 죽지로 후러치니

24) 「티평양 전첩」, 『신한민보』, 1942년 6월 25일.



머리가 끈어를 지며 에리솜틀 하더라

[주] 장사진은 긴 뱀의 진이오 이번 솔로몬 미해 전장에 왜군 호항선[칸보이]이 낚침 업시 니어 오난 것이 장사진과 갓다고 하얏다²⁵⁾

위의 「솔로몬 미군의 승첩을 듯고」 말미 작자 주의 “왜군 호항선[칸보이]”, 곧 일본군 수송선(convoy)은 중장에서 “장사진 돌닌 뱀”에 비유되어 있다. 독수리가 날개로 뱀을 후려쳐서 뱀의 머리가 끊어지듯이, 1942년 11월 12일에 미군과 일본군이 벌인 과달카날 해전에서 심하게 부서진 일본군 기함(旗艦) 히에이 호가 11월 13일 아침에 미군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호에서 출격한 항공기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 과달카날 해전의 전투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초장의 “독술이”는 미국의 국조인 흰머리독수리와 엔터프라이즈 호에서 출격한 미군 항공기를 중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중장에서 끊어진 뱀의 “머리”는 일본군 기함 히에이 호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연시조 「「비스막」 히의 전첩을 듯고」 중 제1수의 원문이다.

리순신 명량포에 대전첩 「쾌하고나」



믹아더 「비스막」에 승리가 「신의 도움」



아마도 고금 량국의 명장인가 하노라

[주] 거금 삼백여 년 전에 리순신은 명량포에서 왜적을 소탕하시고 믹암 말삼 하기를 한것이 명장의 득의한 말이오. 믹아더 장군은三月 四日 비스막 히에서 왜군 호항 함대를 전멸 하고 말하기를 이번에 완전 성공은 신의 도움이 잇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명장의 득의한 말이다 작자는 고금 동서의 명장

25) 「솔로몬 미군의 승첩을 듯고」, 『신한민보』, 1942년 11월 26일.

의 성공이 모다 왜적 징벌에 잇난 것을 쾌하게 녀여 이시를 쓰난 것이다.²⁶⁾

위의 「「비스막」 히의 전첩을 듯고」 제1수에서 “「비스막」”은 남태평양 뉴기니와 뉴브리튼 사이에 있는 비스마르크 해를 말한다. 비스마르크 해와 뉴기니는 미국 장군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가 방어했다. 비스마르크 해에서는 1943년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미군·오스트레일리아군으로 구성된 연합군과 일본군 간에 비스마르크 해전이 벌어졌다. 비스마르크 해전에서 연합군 공군은 일본군의 순양함 10척, 수송선 12척을 침몰시켰고, 수송선에 승선한 일본군 1만 5천 명을 몰살했으며, 비행기 62대를 파괴했다. 이 작품의 말미 작자 주에서 이순신과 맥아더는 물리적으로 시·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공통적으로 일본군을 물리친 업적이 있으므로, 종장에서 이순신과 맥아더를 “고금 량국의 명장”으로 규정한다. 다음은 「북비주 전첩을 듯고 一」의 원문이다.

투니스 지진 성에 빅기가 필적 날며



장사가 갑옷 풀고 대원수 결박하니



빅림의 흥막한 전선²⁷⁾ 슬히 울고 가더라

[주] 전신은 전장의 신²⁸⁾

위의 「북비주 전첩을 듯고 一」는 튀니스[투니스] 전투를 재현한 작품이다. 북아프리카[북비주] 지역 중 프랑스령 튀니스에서 영국군·미군·프랑스

26) 「「비스막」 히의 전첩을 듯고 一」, 『신한민보』, 1943년 3월 11일.

27) “전선”은 “전신”을 조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이다.

28) 「북비주 전첩을 듯고 一」, 『신한민보』, 1943년 5월 20일.

군으로 이루어진 연합군과 추축군인 독일군·이탈리아군으로 구성된 아프리카 집단군(Afrika Korps)이 1942년 11월 17일부터 전투를 벌이었는데, 이듬해인 1943년 5월 7일에 연합군에 의해 튀니스가 함락되었고 5월 13일에 아프리카 집단군이 항복했다. 이때 독일군 사령관 위르겐 폰 아르님(Jürgen von Arnim), 이탈리아군 사령관 지오반니 메세(Giovanni Messe)를 비롯한 아프리카 집단군 27만 5천 명이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다.²⁹⁾ 이러한 사실을 초·중장에서 “튀니스 썩진 성에 빅기가 펼쳐 날며 / 장사가 갑옷 풀고 대원수 결박하니”라고 표현한다. 아울러 독일군이 튀니스 전투에서 패전했기 때문에, 중장에서 베를린[빅립]의 전신(戰神), 곧 독일군의 무운(武運)을 주관하는 신이 “습히 울고 가더라” 하고 표현한다.

미국의 도쿄 공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는 「동경작격」(1942년 6월 18일), 「동경에 붓는 불」(1945년 6월 7일), 「네 죄로 흘린 피」(1945년 6월 28일), 「일본의 핏빛 「혈치」」(1945년 7월 5일) 등이 있다. 다음은 「동경작격」의 원문이다.

꿈에도 생각못한 쇠시가 날아왔다



와직근 청턴벽력 동경이 불속이니



진주항 김혼 원수를 너도 응당 알니라³⁰⁾

위의 「동경작격」은 1942년 4월 18일 미국 대령 제임스 돌리틀(James Doolittle)의 지휘로 미군 항공모함 호넷 호에서 출격한 폭격기[쇠시] 16대가 도쿄·요코하마·나고야·고베 등을 폭격한 일을 재현한다. 일본의 진주

29) 존 키건 지음, 류한수 옮김, 앞의 책, p.512.

30) 「동경작격」, 『신한민보』, 1942년 6월 18일.

만 공습 이래로 미국은 일본을 상대로 “진주항 김혼 원수”를 갚고자 했다. 미국과 일본 본토의 물리적 거리 차이로 인해 “동경이 불속이” 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그런데 미군의 공습이 있던 4월 18일 낮 12시에 날씨가 청명했기 때문에, 폭격기[최시]에 실은 폭발탄·연소탄은 학교·병원 등 목표물의 한 가운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다.³¹⁾ 또한 일본은 목조 건물이 많아 화재가 쉽게 일어났다. 이로 인해 큰불이 났으며, 사망자수가 약 3천 명 내지 4천 명에 달했다.³²⁾ 이처럼 미군의 도쿄 공습은 일본 입장에서 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에 해당하므로, 중장에서 이 일을 “청턴벽력”에 비유한다. 종장의 “진주항 김혼 원수를 너도 응당 알니라”라는 구절은 “청턴벽력”과 같은 미군의 도쿄 공습의 정당성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말해준다. 다음은 「동경에 붓는 불」의 원문이다.

동경에 붓는 불이 네 죄를 다 티우라



인간에 뿌린 피는 강하가 되엿고나!



八十년 명치 피업이 식은지만 깃털스니³³⁾

위의 「동경에 붓는 불」이 『신한민보』에 게시되기 이전인 1940년부터 미국은 B-29 폭격기를 개발했다. 미군은 B-29 폭격기를 이용하여 1945년 2월 16부터 2월 17일, 2월 25일, 3월 4일, 3월 10일, 5월 25일에 도쿄를 공습했다.³⁴⁾ 이때 B-29 폭격기는 도쿄에 피해를 입히기 위해 저고도로

31) 「동경작격의 제-보를 듯고」, 『신한민보』, 1942년 4월 30일; 「동경작격은 사실이 다」, 『신한민보』, 1942년 5월 14일.

32) 「동경작격은 사실이다」, 『신한민보』, 1942년 5월 14일.

33) 「동경에 붓는 불」, 『신한민보』, 1945년 6월 7일.

34) 「미국 비행기는 대규모로 동경을 작격」, 『신한민보』, 1945년 2월 22일; 「미국 비행

비행하면서 도쿄의 황궁 남쪽, 일본군 비행장, 상공업 지대에 폭탄을 투하했다. 미군의 도쿄 공습은 일본의 산업적·군사적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고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³⁵⁾ 미군의 도쿄 공습으로 8만 9천 명이 사망했는데³⁶⁾, 이러한 사실을 “인간에 썩린 피는 강하가 되었”다고 비유한다. 또한 “명치 찌임”, 곧 메이지유신(1868) 이래로 변화한 일본의 수도 도쿄는, 미군의 공습으로 “식은 적만 것”든 폐허가 되었다.

2. 재미한인의 전시 지원 및 위상 제고

다음은 「춘광이 다시 오나니」의 원문이다.

적막한 이 동산을 그 누가 도라보랴



국화가 말났으니 만절도 엮다던가?



춘광이 다시 오나니 기다리자 하옵건

기가 일본 황궁을 작격, 『신한민보』, 1945년 3월 1일; 「동경격작」, 『신한민보』, 1945년 3월 8일; 「제二十九호가 동경을 작격」, 『신한민보』, 1945년 3월 15일; 「일본 동경이 부스러진다」, 『신한민보』, 1945년 4월 26일; 「미국 비행기 작격 하에 동경이 올라갔다 八十年 제국취업이 한편 초토……왜놈들이 이제야 인도 정의를 불어넣는다……」, 『신한민보』, 1945년 5월 31일; 「동경에 부는 불」, 『신한민보』, 1945년 6월 7일. 한편, 미군은 1940년에 B-29 폭격기를 개발한 이후, 일본의 수도인 도쿄 이외에도 일본 대도시인 나고야·오사카·고베·요코하마·시즈오카·가와사키 등을 1945년 2월부터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인 8월 13일, 8월 14일까지 간헐적으로 공습하기도 했다.

35) 「일본 동경이 부스러진다」, 『신한민보』, 1945년 4월 26일; 「일본 각기 작격」, 『신한민보』, 1945년 6월 7일.

36) 존 키건 지음, 류한수 옮김, 앞의 책, p.854.

[주] 만절은 느진 절지 즉 민 나중 남아 잇든 절지임³⁷⁾

위의 「춘광이 다시 오나니」는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의 첫 작품으로,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지 4일째 되던 1941년 12월 11일에 『신한민보』에 발표되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 직후 재미한인은 미국의 승리가 조국 광복의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인식한 것을 고려하면, 초장의 “적막한 이동산”은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긴 조국을, 종장의 “춘광”은 광복(光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곧 작자는 위의 작품을 통해 국권 회복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국권 회복을 위해 재미한인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주도로 미국에 대한 전시 지원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전시에 나온 국화」(1942년 8월 6일), 「그달엇다」(1942년 9월 3일)에 재현되어 있다. 다음은 「전시에 나온 국화」의 원문이다.

전시에 나온 국화 올 밋헤 심어두고



꽃 피는 중앙시절 금풍을 기다리니



창 압헤 푸른 버들은 응당 실여 하려만³⁸⁾

위의 작품의 시적 대상인 “전시에 나온 국화”에 관한 설명은, 홍언이 ‘추선’이라는 필명으로 1942년 6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신한민보』에 10회 연재한 칼럼 「전시에 들어온 한국의 국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37) 「춘광이 다시 오나니」, 『신한민보』, 1941년 12월 11일.

38) 「전시에 나온 국화」, 『신한민보』, 1942년 8월 6일.

은 1942년 6월 4일자 『신한민보』에 게시된 「전시에 들어온 한국의 국화」의 일부이다.

일각 썬메인 화초 상점에 가서 국화의 모종을 차져보니 「코리인 하이부리드」이라는 한국 국화의 모종이 있고 번역하면 한국 국화의 잡식이라는 것인데 모종 파난 사람이 말하기를 화판과 빗이 슈십 종이라고 한다. 이왕에는 한국 국화의 모종을 보지 못하였고 국화의 모종은 거의 다 일본종이라 하더니 미일 기전 이후 홀연히 코리인 하이부릴이 시장에 올은 것을 보고 비로소 한국의 국화가 전시에 들어온 것을 알고 이로부터 전시 국제 관계를 련상하게 되었다 니 엇지 다만 국화를 위히셔 이 글을 쓰라?³⁹⁾

위의 인용문과 같이, 홍언은 독일인[썬메인]이 경영하는 꽃집에서 ‘코리인 하이부리드’(또는 코리인 하이부릴, Korean hybrid)라고 불리는 한국 국화의 모종을 보았다. 곧 태평양전쟁 이전에 일본이 “세상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모다 시장에 올났고 다만 그 일흠을 변히셔 일본 것으로 만들었”⁴⁰⁾지만, 태평양전쟁 이후 미국 시장에 나온 한국 국화는 산지와 그 이름을 되찾은 것이다. 홍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태평양전쟁 이후 미일 간 국제관계가 달라졌고, 재미한인이 미국의 전쟁 수행에 협조하면서 한국 국화뿐만 아니라 재미한인의 위상이 격상됨을 체감했다. 이상에서 언급한 「전시에 들어온 한국의 국화」의 내용을 통해 「전시에 들어온 국화」는 한국 국화를 작품의 표면에 내세워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재미한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그달었다」의 원문이다.

39) 「전시에 들어온 한국의 국화」[一], 『신한민보』, 1942년 6월 4일.

40) 「전시에 들어온 한국의 국화」[四], 『신한민보』, 1942년 6월 25일.

오날에 괴달엇다 힘으로 달엇느냐?



씨끗한 一뎡단심 뭉쳐서 달엇고나!



이 단심 길히 뭉쳐야 괴가 달너 잇나니⁴¹⁾

위의 「괴달엇다」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1942년 8월 29일 국치기념일에 캘리포니아 주 로스엔젤레스 시정청에 태극기를 게양했던 이른바 현기식(懸旗式)을 재현한 작품이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으로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지 33년 만에 태극기가 미국과 동맹을 맺은 28개국의 국기와 함께 날리게 되었다. 이 현기식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컬버트 올슨(Culbert Olson), 로스엔젤레스 시장 플렛처 바론(Fletcher Bowron)을 비롯하여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된 기념행사로써⁴²⁾ 로스엔젤레스 시정청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했음을 의미한다. 당대에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1942년 9월 10일자 『신한민보』에 게시된 「괴를 달고서」에서 “최근 외국인의 우리 민족에 대한 평론을 드르면 그들이 말하기를 한국은 령토, 인민, 문화, 무용과 및 경제 무엇으로나 독립할 자격이 잇”⁴³⁾다는 언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인이 “씨끗한 一뎡단심 뭉”친 결과인 것이다. 그럼에도 재미한인에게는 앞으로도 “이 단심 길히 뭉쳐야 괴가 달너 잇”을 수 있다는 당대의 과업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다음은 「괴를 달고서」의 일부이다.

 다만 한 가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야족 단결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임시정부 승인 문제에 관계가 있고 이것이 즉 우리의 국기를 이날

41) 「괴달엇다」, 『신한민보』, 1942년 9월 3일.

42) 「괴를 달고서」, 『신한민보』, 1942년 9월 10일.

43) 「괴를 달고서」, 『신한민보』, 1942년 9월 10일.

로부터 전시에 날니게 할 희망에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잊지 하여야 전민족이 장차 한 데로 뭉칠 터인고? 〈…〉 지미한족연합회의 한대로 뭉친 것을 보면 전 민족의 뭉치는 도리를 짜라서 짜다를 수 잇든 것이다 지미한족연합회는 작년 四월에 미주 하와이, 멕시코, 一만 동포를 단결하얏고 실제 정형에 들어가 차져보면 정신상 단결이 아직 완전치 못하고 계다가 소수 반동파의 장인도 잇는 것이다 자테의 충돌이 잇는 썩는 참고 견대고 반동파의 장이가 잇슬 썩에도 또한 참고 견대며 한결갓치 뭉쳐가지고 잇슴으로써 八二九 라성 시정텅에 괴를 다는 임무를 완성한 것이 다 솔직하게 말하면 지리 습관상 연합회를 원치 안는 이도 잇고 또 이상한 음모를 가지고 연합회를 썩트리려는 자도 잇지만은 〈…〉 오직 연합회가 단 것을 보면 여기서 전 민족의 뭉치는 리익이 얼마나 큰 것을 짜다를 수 잇는 것이다 우리는 지미한족연합회로부터 전 민족이 한대로 뭉치는 길로 나가자! 그러한 연후에 우리의 국기가 비로소 전시에 날니게 될 터이다.44)

위의 인용문과 같이, 미주 한인사회의 분산된 독립운동을 재미한족연합 위원회가 통할했지만 분파가 여전히 있었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동맹국으로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1942년 8월 29일 현기식이 거행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아직 한인이 단결하지 못했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장의 “이 단심 길히 뭉쳐야 괴가 달녀 잇나니”라는 구절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인정 받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인독립운동단체가 단결하면, 태극기를 오랫동안 게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942년 9월 3일자 『신한민보』에 실린 「이날 八二九에 선현을 묵상함」에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 괴를 다는 것은 이 괴를 앞세우고 전징에 참가하여 이 전징을 익이고 이 괴를 영원히 날니기 위함이니 이것이 선현의 끼치신 뜻이오 우리 민족의 심사 영욕을 결명하는 최후 전징이 올시다.”45)라고 언지되어 있다.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

44) 「괴를 달고서」, 『신한민보』, 1942년 9월 10일.

한다고 인식한 재미한인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승리하면 태극기를 오랫동안 게양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제2세 재미한인은 미군에 자원입대하기도 했다. 제2세 재미한인의 미군 입대에 관한 작품으로는 「안수산을 전디로 보너며」(1942년 12월 17일), 「안수산 히군 소위에게 려화를 썩겨 주며」(1944년 9월 7일)가 있다. 다음은 「안수산을 전디로 보너며」의 원문이다.

수선화 썩겨주고 전정에 가는 바다



교결한 명월하에 섬산이 보이거든



「홍옥」의 복치를 잡아 「두둥둥」 들너치며

[주] 섬산은 도산이오 홍옥은 넷적에 유명한 량자군이니 그는 미양 전진에 림하야 복치를 잡아 복을 올려 사기를 고동함으로써 빅전빅승하얏다
안수산은 고 안도산 선성과 동부인의 장녀오 일작일 수선화를 썩겨다 주며 고별하기를 히군 공작대의 복무를 지원하야 아요와에 잇는 히군 훈련학교로 가노라고 하거늘 섭섭히 보너고 이 시를 써서 그 일을 기록한다⁴⁶⁾

위의 「안수산을 전디로 보너며」 말미 작자 주와 같이, 안수산(安繡山)은 안창호(安昌鎬)의 장녀이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 때 안수산은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었다.⁴⁷⁾ 안수산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웨이브 부대 장교 훈련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1942년 12월 12일에 아이오와[아요와] 시더 폴스에 있는 해군 훈련학교로 떠났다.⁴⁸⁾

45) 「이날 八二九에 선현을 목상함」, 『신한민보』, 1942년 9월 3일.

46) 「안수산을 전디로 보너며」, 『신한민보』, 1942년 12월 17일.

47) 존 차, 문형렬 옮김, 「웨이브 부대」, 『버드나무 그늘 아래-도산 안창호의 딸 안수산 이야기』, 문학세계사, 2003, p.100.

위의 작품은 안수산이 아이오와 시더 폴스로 떠나기 전에 평소 아저씨처럼 여긴 작자에게 수선화를 꺾어주며 작별을 고한 일을 재현한다.⁴⁹⁾ 초장에서 “수선화 썩겨주고 전장에 가는 바다”는 시적 대상인 안수산이기도 하고, 안수산이 해군 장교로서 있어야 할 전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곧 “바다”는 해군 장교 안수산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공간인 것이다. 중장의 “섬산”은 자연적으로 섬 위에 우뚝 솟은 산이기도 하고, 안창호의 호(號)인 도산(島山)에 대한 우리말 표현이기도 하다. 중장의 “홍옥”, 곧 양홍옥(梁紅玉)⁵⁰⁾은 중국 남송(南宋) 장군 한세충(韓世忠)의 아내이자 장수로서

48) 「한인 청년 종군록」, 『신한민보』, 1942년 12월 17일.

49) 안창호의 동지이자 홍사단우였던 홍언은, 안수산의 이름을 지어 주었고(방선주, 앞의 논문, p.288), 홍사단소가 1929년에 사우스 카탈리나 3421번지로 이전하기 전까지 로스엔젤레스 노스 피구로아 가 106번지 집에서 안창호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 안수산은 동생 안수라와 함께 1941년 3월 23일 홍사단 회집실에서 있었던 홍언의 회갑연에 참석하여 홍언에게 생화를 선물했고(「홍언씨의 회갑연」, 『신한민보』, 1941년 3월 27일), 홍언 사후 인터뷰에서 홍언을 아저씨와 같이 생각된다고 말했다(방선주, 앞의 논문, p.301). 홍언은 「안수산을 전디로 보너며」 이전에 안수산을 시적 대상으로 하는 가사 「산옹의 익너 수산에게」(『신한민보』, 1936년 3월 19일), 시조 「안수산에게」(『신한민보』, 1940년 6월 13일)를 지었다. 이상의 일화를 통해 홍언과 안수산이 친밀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50) 양홍옥에 대해 최웅권은 “梁紅玉(1102~1135), 역사적 전기인물로서 명조 때 장사유(張四維)가 쓴 전설 “雙烈記”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항금(抗金)의 영웅으로 유명하다.”(최웅권, 「최승희와 매란방」, 『한중인문학연구』 제36집, 한중인문학회, 2012, p.240 주10)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최웅권은 중국 경극배우이자 중국회극연구원장이었던 매란방(梅蘭芳)이 상하이 사변(1937) 이후 “홍풍에서 ‘양홍옥(梁紅玉)’ 등의 경극을 공연하면서 항일운동을 벌이”(최웅권, 앞의 논문, p.240)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여기에서 최웅권이 말하는 “양홍옥(梁紅玉)”은 바로 매란방이 창작한 경극 「항금병(抗金兵)」이다. 홍언이 「안수산을 전디로 보너며」(『신한민보』, 1942년 12월 17일)에서 양홍옥을 등장시킨 것은, 「항금병」에서 양홍옥을 연기한 매란방의 항일 정신과도 관련 있을 것으로 추단된다. 한편, 『신한민보』의 기사 중 「국제 학술회에 한인 출연」(『신한민보』, 1930년 6월 5일), 1945년 4월 19일자 『신한민보』 ‘소신문’란, 1945년 10월 18일자 『신한민보』 ‘시사중중’란은 매란방의 근황, 경극 작품, 항일 정신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란방이

1130년 황천당전투에서 북을 울려 남송 군사 8천의 사기를 진작시켜 금(金)의 10만 대군을 물리친 인물이다. 작자는 중·종장에서 “섬산”, “홍옥”을 언급함으로써, 안수산이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힘쓴 선친 안창호의 뜻을 계승하고, 홍옥이 남송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켜 승리한 것과 같이 해군의 사기를 울려 전쟁에서 백전백승하여 한국 독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3. 연합군 전사자 및 플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추모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 전사자를 추모하는 작품으로는 「순국한 미국 비행원을 추도함」(1943년 5월 6일), 「김계춘 소위를 이도함」(1944년 6월 8일), 「리원규 중위의 전사를 이도함」(1944년 9월 21일) 등이 있다. 다음은 「김계춘 소위를 이도함」의 원문이다.

빅년을 산다기로 죽어서 씌는다면
 ◆
 소년에 죽더라도 전사로 죽은 너는
 ◆
 사장에 못친 빅골이 씌지 안코 있나니⁵¹⁾

위 작품의 시적 대상인 “너”, 곧 김계춘(金溪春)은 캘리포니아 주 델라노에 거주했던 독립운동가 김형각(金亨珏)의 차남이다. 김계춘은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측량기사로 일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인 1942년에 김계춘은 하와이에서 미국 공군에 종군했으며, 그해 12월에 샌디에이고 비행학교에 입학하여 1943년에 졸업했다. 소위의 군위를

미주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51) 「김계춘 소위를 이도함」, 『신한민보』, 1944년 6월 8일.

받은 그는, 1944년 2월에 미국 육군 비행사로 북아프리카전선에 출전했다가 이탈리아전선으로 파송되어 공중전에 참가했는데, 유고슬라비아에서 부상을 입고 1944년 4월 4일에 25세의 나이로 전사했다.⁵²⁾

위의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인간은 “빅년”을 산다고 하지만 김계춘은 “소년에 죽”었고, 인간은 “죽어서 씩는다”고 하지만 김계춘의 “사장에 못친 빅골이 씩지 안코 잇나니”라고 발화한다. 이처럼 위의 작품은 ‘빅년:소년’, ‘씩다:씩지 않(다)’와 같이 시어의 대조를 활용한다. 이로써 위의 작품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김계춘의 전사 정신은 영원할 것임을 강조하고, 동시에 망자인 김계춘을 위로한다. 다음은 「리원규 중위의 전사를 이도함」의 원문이다.

장사의 가는 령혼 만사를 다 니저도
 ◆
 자모의 우는 양을 못 니저 방황하니
 ◆
 처량히 날니는 낙엽 도라 찌리지더라⁵³⁾

위의 작품에서 추모 대상은 로스엔젤레스 한인장로교회 장로 이영기의 차남 이원규이다. 이원규는 캘리포니아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했고,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제2세 재미한인으로서 출생국인 미국에 은혜를 갚고 조국인 한국의 장래를 위해 1941년에 미군에 정식으로 입대했다.⁵⁴⁾ 이원규는 미국 아이다호 보이스 병영 공군 사진과에서 비행기 사진사로 복무했는데 성적이 우수하여 소위로 승진했고, 공군 연습학교에 입학하여 항공술을

52) 「김계춘 소위 전사-이티리 전장에서 피상 운명」, 『신한민보』, 1944년 6월 1일; 「김계춘 소위의 추도식-라성 한인 기독교회에서」, 『신한민보』, 1944년 6월 22일.

53) 「리원규 중위의 전사를 이도함」, 『신한민보』, 1944년 9월 21일.

54) 「리원규 중위 영국서 전사」, 『신한민보』, 1944년 9월 14일.

배웠다. 그 이후 이원규는 미국 공군 기상대 중위로 복무했고, 영국에 출전한 지 2개월 10일째인 1944년 8월 26일에 28세의 나이로 영국에서 전사했다.⁵⁵⁾

이원규는 전사하기 하루 전인 8월 25일에 어머니[자모]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서 이원규는 어머니에게 팔이 아픈 손을 많이 쓰지 말 것을 당부했고, 영국에서 8월 25일부터 중요한 직무를 맡았으므로 기도를 많이 해줄 것을 부탁했으며, 대령(colonel)을 상관으로 모시고 일하기 때문에 업무 집중력을 발휘해야 함을 전했다.⁵⁶⁾ 그런데 이원규 사후에 이 편지를 받고 울고 계실 어머니로 인해 초·중장에서 이원규의 영혼이 “만사를 다 니저도 / 자모의 우는 양을 못 니저 방황”한다고 말한다. 곧 초·중장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이승을 떠도는 망자의 한을 표현한 것이다. 중장의 “쳐랑히 날리는 낙엽 도라 썰리지더라”라는 구절은 이원규의 절명을 생명을 다해 떨어지는 ‘낙엽’에 비유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원규의 절명에 대한 슬픈 정서를 한층 고조시킨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 진영의 미국 제32대 대통령 플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가 서거하기도 했다. 다음은 「루통령의 서세를 숭허함」의 원문이다.

일월이 빗치 업고 세계가 진동하니



55) 「리원규 중위 영국서 전사」, 『신한민보』, 1944년 9월 14일.

56) 다음은 이원규 중위가 1944년 8월 25일에 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인데, 「리원규 중위 영국서 전사」(『신한민보』, 1944년 9월 14일)에 수록되어 있다.

「어머님! 팔 압흐신 손을 가지고 만히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자는 이곤서 오날 부터는 큰 직임을 맞앗사오니 특별히 기도 만히 하야 주세오 커널과 갓치 일하기 썩문에 정신을 꼭 치리고 일을 바로 히야 되겡습니다」

위인이 가시도다 화평을 어이하리?



다 갖치 살너는 세상 「정신불사」 하쌌다!57)

위의 「루통령의 셔세를 슌허함」은 1945년 4월 12일 뇌출혈로 서거한 루즈벨트 대통령을 추모하는 작품이다. 1945년 4월 19일자 『신한민보』 1면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서거를 알리는 기사 「루통령의 셔세를 슌허함」이 게시되었다. 다음은 「루통령의 셔세를 슌허함」의 후반부이다.

우리 소약국 민족이 루통령을 우리러 사모하는 것은 그가 주장한 四대 자유요 四대 자유 가운데 「두려움 업는 자유」는 소약 민족의 참담한 정형을 소약국 민족 자기보다 더 살들이 감하여스니 그는 진실로 그리스도 인이오 무량한 자비심이 정의를 들고 니러서서 잔인 흉독한 불의와 싸흔 것이 실로 소약 민족을 건지기 위함이 올시다 우리 소약 민족은 므른 테국주의는 빗치 회거나 불거나 다 그만치 두려워하는 것이오 이제 대전 결속이 가차운 오날을 당하여 그의 주장이 실현되기를 바랏다가 홀연히 봉서한 놀나운 소식을 듣고 풍우표요 중에 지도를 일혀버린 듯 슌허 합니다

넛적에 우리 나라 리 충무공피웁서 八년 왜난에 싸흠을 다 익여 노코 셔세하였고 금일 루통령은 동셔 전징에 완전 승리를 잡도록 지도하고 봉서하였스니 고금 위인의 력사 결속이 대기 이와 갖고 금후 세계 안전 보장에 관히서는 미국의 당국과 밧 련합국의 당국이 다 갖치 동력하여 루통령의 맞치지 못한 사업을 완성하기를 바랍니다.58)

위의 인용문은 1941년 1월 6일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두교서(annual message)에 언급한 4대 자유(four freedoms) 중 두려움 없는 자유(freedom from fear), 약소국가를 살뜰히 보살피고 제국주의와의 대결을 지휘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위인적 면모, 그의 서거 이후 세계 안전 보장

57) 「루통령의 셔세를 슌허함」, 『신한민보』, 1945년 4월 19일.

58) 「루통령의 셔세를 슌허함」, 『신한민보』, 1945년 4월 19일.

을 위해 미국과 연합국이 힘을 합쳐야 함을 언급한다. 그중 루즈벨트 대통령의 위인적 면모에 대한 언술에서 이순신,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휘한 후 절명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를 근거로 이순신과 루즈벨트 대통령을 “고금 위인”으로 규정한다. 중장의 “위인”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초장의 “일월이 빗치 업고 세계가 진동하니”라는 구절은 “위인”처럼 비범한 인물이 서거하기 전에 나타나는 불길한 징조에 대한 표현이다. 중장에서는 세계의 “화평”을 위해 선두에 섰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영면한 일을 안타까워하면서 “위인이 가시도다 화평을 어이하리?”라고 탄식한다. 이로써 초장에서 표출된 불안한 정서는 중장에서 슬픈 정서로 전환된다. 중장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거했지만, 세계의 화평과 “다 갖치 살너는 세상”, 곧 공영을 지향하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신은 영원하다고 말함으로써 생자를 위로한다.

4. 추축군의 항복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추축군의 항복을 투영한 작품으로는 「아이슨하워 장군」(1945년 7월 12일), 「왜적의 항복을 듯고」(1945년 9월 6일)가 있다. 다음은 「아이슨하워 장군」의 원문이다.

범갓흔 텃하장사 양갓치 착하고나



강적이 항복하고 어린이 짜라오니



아마도 당대 위인은 장군인가 하노라⁵⁹⁾

59) 「아이슨하워 장군」, 『신한민보』, 1945년 7월 12일.

위의 「아이슨하워 장군」은 “장군”, 곧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가 1945년 6월 18일 미국에 귀국한 일과 그의 공적을 기리는 작품이다. 아이젠하워는 귀국에 앞서 1945년 5월 7일 프랑스 랭스에 있는 연합군 사령부에서 “강적”, 곧 독일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아이젠하워를 “범갓흔 텃하장사”이자 연합국의 승리를 가져온 선한 존재인 “(착한) 양”으로 표현하고, 어린이가 존경하는 “위인”으로 규정한다. 이처럼 위의 작품은 아이젠하워를 연합군 진영의 전쟁 영웅으로 그리고 있다. 다음은 「왜적의 항복을 뒹고」의 원문이다.

붓대를 던지고서 엉덩춤 헛튼 노리
 ◆
 원수가 항복하니 깎아서 밋척노라
 ◆
 강산이 완정한 날에 너 나라로 갈게나⁶⁰⁾

위의 「왜적의 항복을 뒹고」는 “원수”, 곧 일본의 항복으로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 발표한 작품이다. 재미독립운동가이자 『신한민보』 주필인 작자는 붓대를 던지고 “엉덩춤”을 추며 “헛튼 노리”를 부름으로써 광복의 기쁨을 표현한다. 그리고 “너 나라”, 곧 조국의 “강산”이 완정된 날에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이상과 같이, 이 글은 홍언의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의 내용을 ‘연합군과 추축군의 전투 및 미군의 도쿄 공습’, ‘재미한인의 전시 지원 및 위상 제고’, ‘연합군 전사자 및 플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추모’, ‘추축군의 항복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등 네 가지로 대별하여 살폈다. 이처럼 홍언의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시 상황에서 재미

60) 「왜적의 항복을 뒹고」, 『신한민보』, 1945년 9월 6일.

한인이 겪은 특수한 체험을 재현한다.

IV. 흥언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의 작자의식

작자의식(작가의의식)에 대해 전재강은 “작가 의식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자각하는 심신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문학은 이런 작가 의식을 표출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작가가 처한 시대나 입장, 개별적 성향에 따라 이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⁶¹⁾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글의 IV장에서는 재미독립운동가이자 『신한민보』 주필을 지낸 흥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흥언의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에 표출된 작자의식을 알아보기로 한다.

흥언은 『신한민보』 주필로서 『신한민보』 집필·편집 과정에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간접 체험한 이후, 이를 시조로 지어 『신한민보』 ‘詞藻’란에 발표했다. 흥언은 시조작가로서 서정 양식인 시조 형식을 빌려 당대의 사건에 대한 개인의 정서, 입장 등을 ‘신문’이라는 공적 매체를 통해 『신한민보』 구독자와 공유하고자 했을 것이다. 『신한민보』의 ‘중왜대전’란·‘중일대전’란·‘구주대전’란·‘미일전징폭발’란·‘티평양대전’란·‘미일대해전’란·‘미국던’란에 실린 보도기사와 달리, 서정 양식인 시조가 독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흥언은 『신한민보』 주필로서 압축적인 시조 형식을 활용하여 이 사건들을 『신한민보』 구독자에게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흥언의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에는 흥언의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61) 전재강, 「태고 보우의 산문과 가음명시(歌吟銘詩)에 나타난 작가 의식의 성격」, 『국어국문학』 제178집, 국어국문학회, 2017, p.107.

홍언의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의 첫 작품인 「춘광이 다시 오나니」는, “춘광”이라는 시어를 통해 태평양전쟁이 조국 광복의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확신을 『신한민보』 구독자에게 전달한다. 작자는 「전시에 나온 국화」, 「그달었다」에서 『신한민보』 구독자에게 미국의 전시 수행에 협조할 것을 독려했고, 재미한인의 단결을 강조했다. 이는 독립운동가 홍언의 국권 회복의 의지에서 발로된 것이다.

한국의 광복으로 국권 회복의 의지를 실현한 이후, 한인 디아스포라(diaspora)인 작자는 「왜적의 항복을 듯고」에서 독립된 내 나라로 가고자 하는 고국 귀환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점에서 고국 귀환의 의지는 국권 회복의 의지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리기도의 광영」, 「쌍가포 전침」, 「티평양 희전」, 「기관총 녀헤누어」, 「솔로몬 미군의 승첩을 듯고」, 「<비스막> 히의 전첩을 듯고 一·二·三」, 「북비주 전첩을 듯고 一」, 「아이슨하워 장군」에서 “강적” 독일군이 항복하는 장면은 연합군과 추축군의 전투를 재현하고, 「동경작격」, 「동경에 붓는 불」, 「네 죄로 흘린 피」, 「일본의 핏빛 「혈치」」 등은 미군의 도쿄 공습을 형상화한다. 그런데 이들 작품은 연합군과 추축군의 전투를 선(善)과 악(惡)의 대결로 그리고 있다. 여기에서 선은 연합군에, 악은 추축군에 해당한다. 작자가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에서 아이젠하워를 “양”으로, 추축군을 “적”·“강적”·“원수”·“빔”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작자는 “적”·“강적”·“원수”·“빔”이라는 시어를 통해 추축군에 대한 적개심, 나아가 혐오를 표출했다. 또한 「동경작격」의 종장 “진주항 김훈 원수를 너도 응당 알리라”, 「네 죄로 흘린 피」의 초장 “네 죄”, 「일본의 핏빛 「혈치」」에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죄를 우의적으로 표현한 “핏빛”, “핏땀”, “혈치”(血債)라는 시어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보복하기 위해 미국이 도쿄를 공습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밝히는 표현이

다. 이러한 표현들은 적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아울러 「북비주 전첩을 듯고 一」, 「아이슨하워 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의 전투 장면은 미군과 일본군의 대결 또는 연합군과 일본군의 대결을 재현한다. 이들 작품에는 미군 또는 연합군의 승패와 관계없이 일본군에 대한 적개심과 반일의식이 나타난다. 한편, 「티평양 히전」, 「「비스막」 히의 전첩을 듯고」, 「안수산을 전디로 보늬며」, 「루통령의 셔세를 슴허함」, 「아이슨하워 장군」에는 이순신·안창호·홍익·루즈벨트·아이젠하워 등 “위인”, 곧 애국적 인물이 등장한다. 작자는 적에 대한 비판의식과 「김계춘 소위를 인도함」에서 보인 ‘전사 정신’, 곧 전의를 높이기 위해 적과 대척점에 있는 애국적 인물을 찬양한다. 이처럼 홍언의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에는 일본군을 비롯한 추축군에 대한 독립운동가 홍언의 비판의식이 표출된다.

이상과 같이, 홍언의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에는 보도에 대한 사명감, 국권 회복의 의지, 고국 복귀의 의지, 추축군에 대한 비판의식과 같은 작자의식이 나타난다. 그중 적에 대한 비판의식과는 전쟁문학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작자의식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홍언의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는 전쟁문학으로서의 면모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재미독립운동가이자 시조작가인 홍언은 ‘동희수부’라는 필명으로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 33수를 『신한민보』에 발표했다. 홍언의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를 대상으로 그 내용과 작자의식을 살펴본 이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홍언의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의 내용은 ‘연합군과 추축군의

전투 및 미군의 도쿄 공습’, ‘재미한인의 전시 지원 및 위상 제고’, ‘연합군 전사자 및 플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추모’, ‘추축군의 항복과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식’ 등으로 대별된다. 둘째, 홍언의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에 표출된 작자의식은 ‘보도에 대한 사명감’, ‘고국 복귀의 의지’, ‘국권 회복의 의지’, ‘추축군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결과, 이 글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문학이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홍언의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수한 체험을 겪은 재미한인의 역사적 기록물이자 문예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홍언의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는 제1세 재미한인인 홍언이 고전시가 중 하나인 시조의 형식을 실험하여 모국어인 한국어로 창작했으므로, 홍언의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를 해외 한국문학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의 연장선 상에서 홍언의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는 하근찬(河瑾燦)의 소설 「수난시대」(1957), 이병주(李炳柱)의 소설 「관부연락선」(1968~1970), 「변명」(1972), 이병구(李丙求)의 소설 「후조의 마음」(1958), 「해태이전」(1958), 「두 개의 회귀선」(1960), 「기로에 나선 의미」(1960), 「사라하미 애화」(1960) 등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소재 한국 전쟁문학의 계보를 구축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신한민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npsh>)

California Digital Library CALISPHERE(<https://calisphere.org/>)

2. 논저

김도형, 「태평양전쟁기 재미한인의 ‘전시행동’」, 『역사문화연구』 제21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4, pp.1~22.

김아연, 「재미작가 홍언의 국화 소재 시조에 나타난 국화의 심상-〈신한민보〉 게재 작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64집,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pp.219~318.

박미영, 「재미작가 홍언(洪言: 1880~1951)의 시조 형식 모색과정과 선택」, 『시조학논총』 제18집, 한국시조학회, 2002, pp.163-202.

박미영, 「재미작가 홍언의 풍유가사·시조에 나타난 작가의식」, 『시조학논총』 제21집, 한국시조학회, 2004, pp.77-110.

박미영, 「재미작가 홍언의 미국기행시가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적 작가의식」, 『시조학논총』 제25집, 한국시조학회, 2006, pp.175-209.

소재영, 「韓國 戰爭文學의 回顧와 展望」, 『우리文學研究』 제17집, 우리문학회, 2004, pp.3-14.

방선주, 「홍언과 국민회」,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전재강, 「태고 보우의 산문과 가음명시(歌吟銘詩)에 나타난 작가 의식의 성격」, 『국어국문학』 제178집, 국어국문학회, 2017, pp.103-135.

존 차, 문형렬 옮김, 『버드나무 그늘 아래-도산 안창호의 딸 인수산 이야기』, 문학세계사, 2003.

존 키건 지음, 류한수 옮김, 『2차세계대전사』, 청어람미디어, 2007.

최용권, 「최승희와 매란방」, 『한중인문학연구』 제36집, 한중인문학회, 2012, pp.235-251.

홍선표, 『재미한인 독립운동의 표상 김호』, 역사공간, 2012.

Abstract

Contents and Writer's Consciousness in Hong Eurn's Sijo Based The World War II

Kim, A-yun

Hong Eurn (1880-1951) was a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and Sijo writer in Americ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e published the Sijo based The World War II(WWII, 1939-1945) under the pen name of 'The East Sea Sailor (동해수부)' at The New Korea (Sinhanminbo; founded in 1909). This paper has explored contents in his WWII Sijo: Axis & Allies battle, U.S. airstrike against Tokyo, Korean-American support, enabling the enhancement of Korean-American prestige, memorializing dead Allied soldiers and the death of Franklin Roosevelt, surrender of the Axis and ending World War II. This paper has revealed the writer's consciousness in his WWII Sijo: a sense of mission about the report, and the will of restoring sovereignty, desire to return home, and hostilities against the Axis.

Key Word : Hong Eurn, The World War II(WWII), Sijo, Korean American, The New Korea

김아연

소속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기획연구부 일반연구위원

전자우편 : redindi11@naver.com

이 논문은 2020년 05월 20일 투고되어
2020년 06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06월 16일 게재 확정됨.